

「듀공의 날」 제정과 듀공을 오키나와현의 「현수」 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県)에는 상징적인 수목이나 꽃, 생물을 선정하여 친밀감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니이가타현의 따오기, 도야마현의 뇌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열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민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처럼 오키나와현에서는 구루쿤(타카사고, *Pterocaesio digramma*)이 「현어」, 노구치게라(*Sapheopipo noguchii*)가 「현조」, 데이고(*Erythrina variegata*)가 「현화」, 류큐마츠(*Pinus luchuensis* Mayr)가 「현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県獸)」는 아직 없습니다. 이 「현수」를 듀공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 유일한 듀공 서식지로 세계 분포의 최북단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섬 북부 해안에 적어도 3두의 듀공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민조사에 의해 특히 헤노코·오우라만 주변 해역이 오키나와의 듀공에게 있어 중요한 취식지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듀공은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멸종의 위협과 보전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호책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미-일 정부의 헤노코 신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희소한 『최북단의 듀공』의 취식지를 매립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법을 경시하고 또한 과학적 지식도 무시한 채 듀공이 회유하는 해역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듀공의 서식지의 교란이 계속된다면 그나마 적은 수로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오키나와 듀공의 멸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들은 위와 같은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듀공은 현민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오키나와 사람과 자연 간 공생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듀공은 현대에 들어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듀공을 「현수(県獸)」로 지정하여 현 보호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5일을 「듀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인: Ellen Heinz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수·북미바다포유류연구자), Tokiko Kato(뮤지션),

Misako Koja(뮤지션), Seizo Tajima(그림책작가), Mitsuru Moriguchi(오키나와 대학

인문학부 아동문화학과 교수, 『듀공의 노래』.2003 저자), Shaoming Yang(그림책 작가),

Noriko Matsui(수중카메라맨)

이름	주소

※기입해주신 개인정보는 이번 탄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단위 등이 서명하실 경우 같은 주소라도 상동, 혹은 “ 로 간략하게 표시하지
말아주십시오.

문의·연락처 : 北限のジュゴン調査チーム・ザン (代表・鈴木雅子)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대표 스즈키 마사코)

주소 : 〒905-0011 沖縄県名護市宮里 4-12-8

4-12-8, Miyazato, Nago-city, Okinawa, Japan (우편번호 905-0011)

E 메일 : n-hokugen.19@kd.biglobe.ne.jp

전화·FAX : 0980-43-7027 휴대전화 : 090-8032-2564

<취지문>는 후면 참조

<듀공의 현수(県獣) 지정을 위한 취지문>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해우목과 포유류로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서식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오키나와현 근해에 서식하는 듀공은 이 분포의 최북단 개체군입니다.

옛날부터 오키나와 사람과 듀공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적에서 듀공의 뼈가 발견되고 있어 과거에는 중요한 식량원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류큐왕조 시대가 되면서 듀공 포획이 왕조에 의해 관리되고, 야에야마에서는 아라구스쿠섬 주민이 듀공을 포획하여 왕조에 진상(進上)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로부터 아라구스쿠섬 풍년제에서는 듀공 사냥을 형상화한 춤사위와 노래를 공연하기도 합니다.

듀공은 만조에 암초(Reef) 안에 자란 해초(우미쿠사, Seagrass)를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간조에는 암초의 입으로 일컫는 부분을 통해 먼 바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암초와 먼 바다를 오가는 듀공을 오키나와에서는 신의 전령사나 쓰나미를 예견하는 불가사의한 동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각지의 기도의 노래, 옛날 이야기에 듀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많은 마을은 바다를 앞에 두고 산이나 들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야산의 동식물에게 얻은 음식과 더불어 눈 앞의 바다에서 얻은 음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바다 저편에는 니라이카나이*로 일컬어지는 신과 조상들이 사는 곳에 대한 신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과 자연의 관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니라이카나이(ニライカナイ): 오키나와현, 카고시마현 아미군도 각지에서 전해지는 머나먼 동쪽 바다의 저편 혹은 바닷속이나 땅속에 있다고 하는 이계(인간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개념의 하나이며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요소. 유토피아의 전승(傳承).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 <https://ja.wikipedia.org/wiki/ニライカナイ>)

한 편, 메이지 정부에 의해 류큐왕조가 처분 된 이후 듀공의 포획은 소위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에야마·미야코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던 듀공은 다이쇼 시대에 포획기록이 끊어지며 멸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키나와섬 근해의 듀공은 오키나와 전투 직후의 식량난 중 포획되어 식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서식환경 악화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키나와 섬 북부 해안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듀공은 기적이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최북단의 듀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고, 세계적으로 듀공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듀공 소송(2003년 제소)에서도 NHPA(국가역사보전법,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기반으로, 듀공은 당사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 의한 듀공의 보호는 천연기념물 지정에만 멈추어 있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마미·오키나와 제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향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현은 「생물다양성 오키나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와 사람과 자연의 관계의 상징인 듀공의 중요성에 대해 현민(県民)이 새롭게 인식함과 동시에, 현이 주체가 되어 듀공의 보전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